| 불자 세상보기 |



석길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의인과 隨處作主의 삶

〈수처작주〉

서울 한 아파트서 발생한 화재
경비원 양 모씨 15층을 오가며
화재 알리고, 피난할 것을 재촉

심장병 있던 자신은 목숨 잃어
살신성인의 삶에 사회가 애도

"어디가든 주인공의 삶을 살라"
경비원, 아파트 주인처럼 산 것
주변 삶을 돌아보는 주인공돼야

3월 20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족들을 일터와 학교로 내보낸 주부들이 겨우 한숨을 돌릴 때쯤이었다. 예기치 않은 화재에 전기는 끊어졌고, 그 때문에 승강기도 멈추었다. 해당 동에 살고 있는 몇몇 주민들은 승강기 속에 갇혀버렸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였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닥친 위험에 다급해진 경비원 양 모씨가 15층짜리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급함과 피난을 재촉했다.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되고, 승강기에 갇혔던 주민들도 무사히 구출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몸으로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내렸던 경비원 양 모씨는 아파트 9층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안타까운 소식에 주민들은 그의 애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몇몇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다. 이 기사를 읽지 못하고 지나친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이목이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쏠려있는 터라 더욱 놓치기 쉬운 기사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사를 읽는 순간 든 생각은 '안타깝다', '고맙다'는 마음이었다. 기사를 통해 전해들은 이의 마음이 그랬으니, 당사자인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가족의 마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다급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려던 경비원 양 모씨 자신도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다.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대피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주민들에게 닥칠 위험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의 따뜻한 가슴이, 자신의 지친 몸보다는 먼저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그런 순간의 그에게는 주민들이 자신의 가족과 한치도 다름이 없는 이들이었을 것이다. 화재진압 그리고 인명의 구출은 소방관들에게 맡겨두고, 먼저 자신의 몸을 돌보았다면, 아마도 인명피해는 더욱 커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렸는데, 자신의 몸과 안위를 먼저 돌볼 가장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병든 몸을 몰아붙인 그에게서 '주인'의 마음, '가장'의 책임감을 목격한다.

가치관이 부재하다고 일컬어지는 세상이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살고 있다면,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안타까움쯤이야 쉽사리 외면하고 마는 세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부되는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터전이고 우리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 사회이기도 하다.

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어느 가장이 그 불행에 맞서지 않을 것이며, 내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는다면 어느 가장이 외면하겠는가? 아파트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경비원 양 모씨에게 그 아파트는 단지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삶이 거기에 있었고 그의 또 다른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그 아파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임제의현 선사가 남긴 말이다. 어디에 가든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어디에 가든 가장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남 탓하며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에게는 뜻 모를 말이기도 하다. 뜻이야 알아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금만 내 주변을 돌아본다면, 조금만 내 주변의 힘든 이들을 관심에 둔다면, 마음에서 떼어놓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오늘 '의인'을 만나 내 삶이 주인공의 삶인지 되짚었으면 좋겠다.

社說

조계종 종회, 종헌개정 의지 있나

추첨제(염화미소법)와 직선제를 골자로 한 2가지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종헌개정안이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각각의 개정안을 다루던 특위는 해체됐다. 이로써 추첨제는 206회에 이어 3차례, 직선제는 207회에 이어 2차례 이월이다. 결국 어느 개정안이든 오는 10월 열리는 총무원장 선거에는 적용키 어려워졌다.

이월 사유는 상충되는 두 개정안이 종회에 상정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다. 통합적인 논의를 통해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할 것인지 고심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지난 종회 때도 똑같이 제기됐다.

당시 두 특위가 내용을 조율해 다시 종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추첨제를 다루는 혁신특위는 그간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고, 직선특위는 회의가 성원되지 않는 등 동력이 떨어졌다. 성원이 됐을 때도 '원점재검토'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오고갔다.

중앙종회는 별다른 고민 없이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을 위한 공을 새 특위에 넘겼다.

종회가 과연 이 공을 다룰 의지가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면 새로운 특위가 열정을 갖고 논의한다 해도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조계종의 각종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금권선거·야합정치 등의 오명을 받아왔다.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최근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곤 있지만 그저 시간만 흐르는 모양새다. 중앙종회가 내년 만료되는 임기를 핑계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것은 종도들의 무너진 신뢰와 비난뿐이다.

불교, '4차산업 혁명' 준비 필요

눈을 뜨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웨어러블 기기가 심박수와 혈압을 체크해 오늘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냉장고 안을 검색하면, 인공지능이 필요한 물품을 배달시키고, 가정용 로봇이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이 보여주는 미래상이다. 매일 언론 지상에 나오는 이들 기술 용어는 이제 낯설지가 않다. 4차산업의 기술들의 발전으로 보여주는 편리함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미래 진행형'이 된 4차산업 혁명에 대해 불교학계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첫 시작은 한국불교학회가 알렸다. 한국불교학회는 3월 25일 '불교와 4차산업' 월례워크숍을 열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4차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12월에는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학술계간지 〈불교평론〉도 올 겨울호 특집으로 '4차산업'을 다룬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불교적 논의는 그간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라 이 같은 논의들이 고무적이고 반갑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잉여 노동이 발생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문화와 정신수행이 더 큰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 만큼 불교계가 4차산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시대를 선도했으면 한다. 또한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일선 포교단체와 관련 산업체가 합심해 미래 포교를 준비하길 바란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택시는 我相을 싣고…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며칠 전 택시를 탔다. 조수석에 앉고 보니 그곳은 달리는 작은 불국토였다. 룸미러에는 언젠가 불사(佛事)에 쓰였을 오색실로 만든 매듭이 걸려 있었고, 기어 아랫부분에는 알 굵은 염주가 자리하고 있었다. 조수석 앞으로는 어느 사찰이름과 풍경이 그려진 작은 달력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나무로 깎은 조그마하고 귀여운 동자승과 모형 목탁이 놓여있었다. 나 역시 불자인지라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넸다.

"기사님 불심이 깊으신가봅니다?"

"예. 제가 절에 오래 다녀서…."

기사님의 대답에 이어 다시 물어봤다.

"어느 사찰에 다니시나요?"

그러자 기사님 왈 "절도 절이지만 사실은 제가 웬만한 스님보다 경전도 많이 읽었고 염불도 잘 하지요. 그리고…."

즉, 불교 의례며 불교 지식이 '웬만한' 스님들보다 더 나아서 여러 절에 다니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답이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지식이 많으면 혹시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셨나 싶어 언제, 어디서 불교 공부를 했는지 물어봤다. 우리나라 불교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은 몇 없으니, 몇 다리 걸쳐 내가 아는 분들을 기사님도 아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자 기사님은 대뜸, "이 분이 불교를 잘 모르시는구먼!"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어디서 불교를 공부하셨느냐는 나의 질문에 내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질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규정되고 나니 속 좁은 내 심사가 조금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기사님은 "요즘은 큰 사찰마다 불교교양대학이 있는데 나는 ○○절에서 불교대학 법사과정을 1기로 마친 사람이에요. 지금 활동하는 법사들은 다 내 후배들이지요"라고 거드름을 피웠다. 그리고는 염불할 때 목소리도 좋고, 스님들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여기저기 불려간다는, 자신의 '화려한' 신앙 활동 자랑을 이어가셨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이론, 한국불교의 문제점 등도 쉬지 않고 이야기하셨다. 기사님의 불교지식이 불교에 관한 개론서도 거의 읽어본 적 없는, '근거 없는 자기만의 해석'임은 불교를 조금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기사님은 혼자 신이 나셨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병들게 하는 탐(貪)·진(瞋)·치(痴) 삼독(三毒)에 대해 많이 듣지만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른다. 특히나 '탐심'을 욕심으로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을 늘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자만심과 교만함, 즉 만심(慢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집착의 산물이므로 탐심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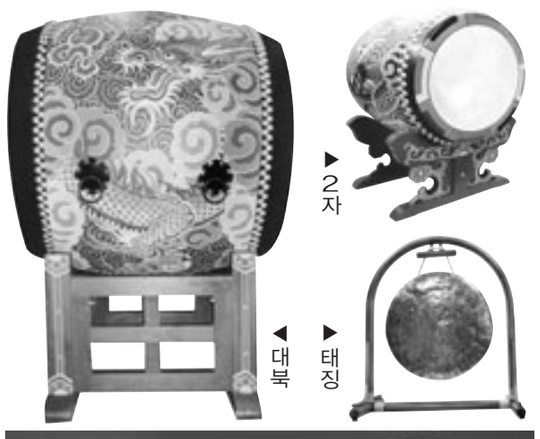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기사님은 삼독을 없애기 위한 공부인 불교를 알게 되어 오히려 '나, 나의 것'에 대한 아상(我相)이 더 커져버린 듯 했다. 그런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에 내 심사가 꼬인 건 내게도 불교를 조금 공부했다는 깜냥과 이에 대한 아상이 기사님 못지않게 가득했었기 때문이리라.

그날 그 택시는 염불소리와 작은 목탁과 부처님을 모신 불국토였지만, 실상은 스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불교법사'와 그런 법사보다 더 잘났다고 믿는 '불교학도'의 아상을 싣고 달리고 있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뻥뻥!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대북
▶태징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건강을 위한 하루 한시간!
선무도
고요히 나와 마주하는 선호흡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선요가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선무술!

"연등회 선무도 공연 4월 30일(일) 오후 12:40"
선무도 기초 과정 모집 중!
(무료체험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송 파 02-3431-4889 서대문 02-735-5349
종 로 02-763-2980 서 초 02-599-5554
www.sunmudo.kr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사)세계선무도총연맹